

우리의 다양한 이웃, 함께 살아요

학습 목표

- ① 세계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한다.
- ② 상호의존성의 의미를 인식하고 세계 속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 1 내 생활 속의 세계화 요소 찾기

아래에 그림은 제품 뒷면에 원산지 표시입니다. 빈칸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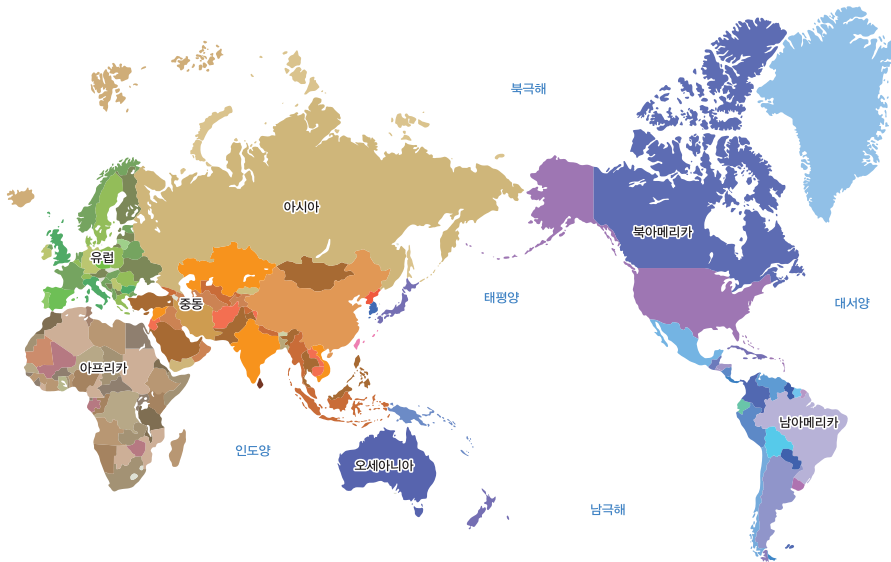
· 유형 : 카레 · 원료명 : 카레분10.0%(강황(인도산), 코리안더(모로코산/캐나다산), 쿠민, 핵누그릭, 흰밀), 밀가루(밀:미국산/호주산), 텍스틴, 혼합식용유 [팜올레인유(말레이시아산), 팜스테아린유(말레이시아산)], 옥수수분, 정제염, 바몬드씨즈닝(대두), 식물성크림(우유), 양파맛분말, 발골분말, 혼합제제(변성전분, 백설탕, 텍스틴), 토마토분, 간칠맛에이스, 옥수수맛분말, 사과분, 조미유, 백설탕, 후추분, 조미고추맛분, 마늘분

· 유통기한 : 상단 표시일까지
· 합성착향료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 이 제품은 난류, 돼지고기, 새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봉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실 : 080-024-2311 (수시자요금부담)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유통기한을 꼭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 포장재질 : 폴리에틸렌(내면)



제품	
필요한 원료와 원산지	Ex. 강황 - 인도산

지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표시하고, 표에 적은 원료의 원산지에서 우리나라까지 화살표로 이어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내 생활 속에서 수입하는 원료나 물품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상상하여 적어 보세요.

예)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든다.

활동 2 퀴즈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아래 문제를 읽고 OX로 표시하세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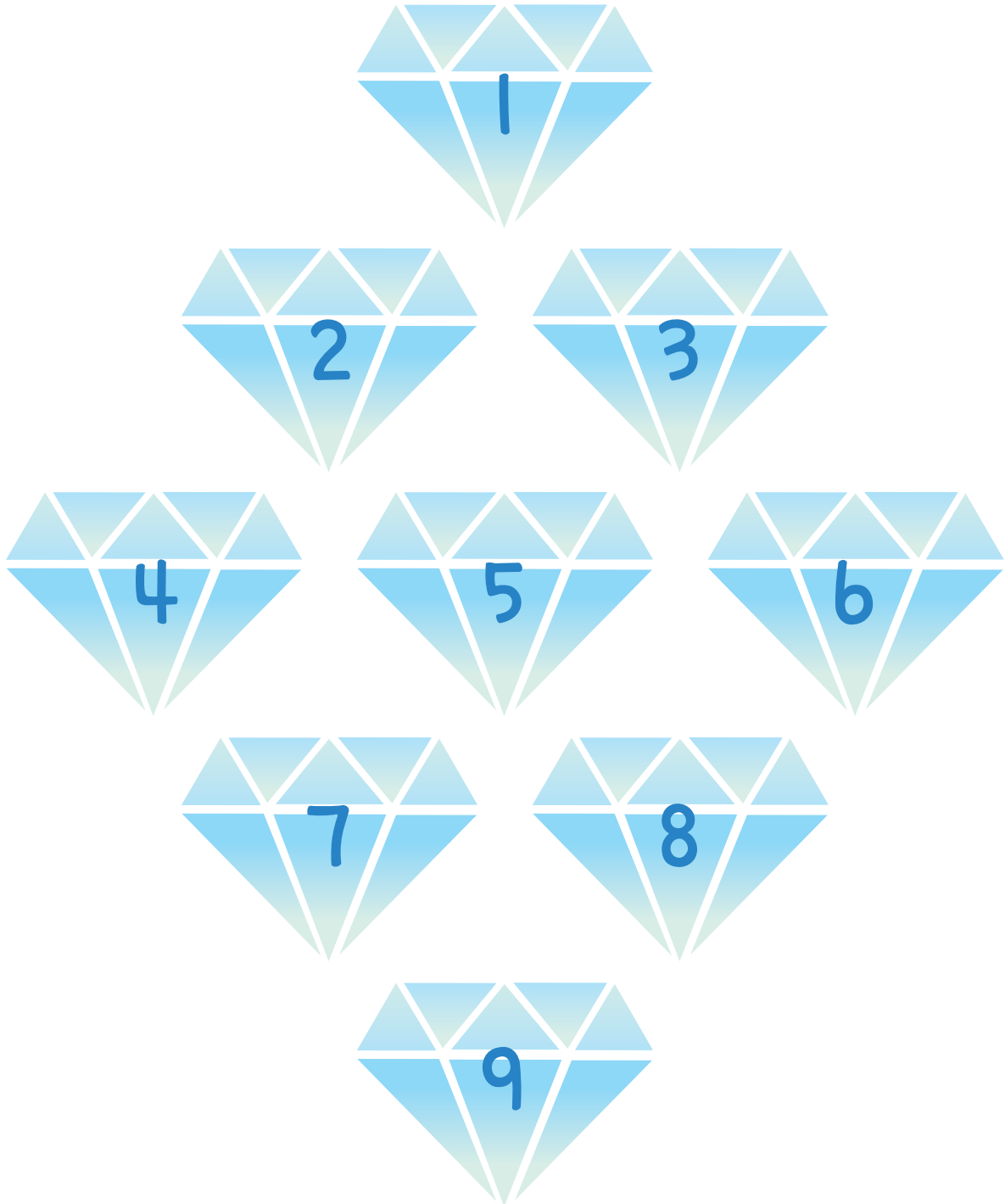


- ①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이 남자이다. ()
- ②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들이다. 어른들 가운데 1명이 노인이다. ()
- ③ 100명 중 15명은 비만인데 반하여 11명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다. 비만 인구가 영양실조 인구보다 많다. ()
- ④ 마을의 모든 에너지의 80%를 20명이 사용하고 있고, 20%를 80명이 나누어 쓰고 있다. ()
- ⑤ 16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다. ()
- ⑥ 통장에 예금 잔고가 있거나, 지갑에 현금이 들어 있거나,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닌다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30명 안에 드는 한 사람이다. ()
- ⑦ 이 마을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뿐이다. ()
- ⑧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 30명뿐이다. ()
- ⑨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00명 중 5명은 글을 읽지 못한다. ()
- ⑩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하다. ()

활동 3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다이아몬드

다양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자세를 갖추는 것은 다이아몬드만큼 값진 일이에요. 부록 스티커를 보고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하고 아래 스티커 판에 붙여 보세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다이아몬드>



우리가 가진 권리, 함께 지켜요

학습 목표

- ① 우리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안다.
- ② 인권이 결핍된 지구촌의 현황을 인식한다.
- ③ 지구촌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자세와 마음을 갖는다.



활동 1 기본적 필요 찾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필요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부록의 필요 카드를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빈 카드에는 카드 내용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써 넣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택한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인가요? 아래에 적어 보세요.

활동 2 한 발 앞으로 게임

선생님이 나눠 주는 역할 카드를 받으세요. 친구들과 한 줄로 서서 질문의 답이 '네'이면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아니요' 이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할 카드 속 사람이 되어 상상해 보고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세요.

① 내가 맡은 역할 :

② 나의 역할이 보호받지 못한 것 : '내(역할)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질문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못했나요?'

③ 나의 역할이 보호받은 것 :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질문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나요?'

④ 나의 느낌 :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게임 후 다른 친구들과 거리 차이가 많이 났나요?'

활동

3

한 발 앞으로의 주인공에게 엮서 쓰기

굶주림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학습 목표

- ① 지구촌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한다.
- ② 빈곤의 실상과 세계의 현상에 대해 안다.
- ③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 2 파이 나누기 게임

식량은 세계의 모든 인구가 먹고 남은 만큼 충분히 생산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나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 국가들에 비해 인구 수는 4분의 1 밖에 되지 않지만 5배나 더 먹습니다. 세계의 식량은 불균형하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파이 나누기 게임 후 아래에 내용을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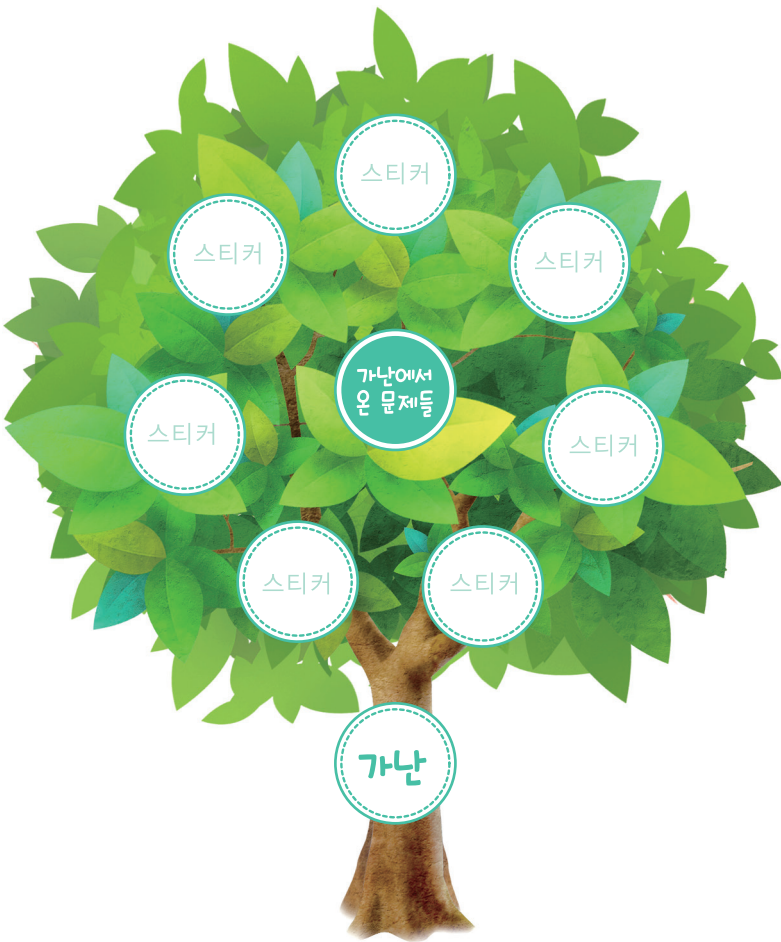
- ① 나는 ()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 ② ()국이 가진 파이는 ()개이며, 국민은 ()명입니다.
- ③ 식량의 양은 충분합니다 / 충분하지 않습니다.
- ④ ()한 방법으로 나누어 먹을 예정입니다.
- ⑤ 남은 / 부족한 파이는 ()할 계획입니다.

활동 3 빈곤 나무로 가난의 원인과 해결방법 찾기

가난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빈곤 현상 스티커

<p>빈곤 ➔ 전 세계 어린이 네 명 중 한 명은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다.</p>	<p>학교 ➔ 병에 걸려 몸이 허약하다. 공부를 하기도 벅차고,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되어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p>
<p>배고픔 ➔ 가난으로 밥을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프는 어린이도 많다.</p>	<p>직업기술 ➔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어린이, 장기 결석자, 중도에 퇴학을 한 어린이는 읽고 쓰기, 셈하기 등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다.</p>
<p>영양실조 ➔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허기가 진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발육이 부진하다.</p>	<p>실업 ➔ 어린이는 누구나 성장을 하여 어른이 되면 취업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 그들이 먹고 살 만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게 되어 실업자가 된다.</p>
<p>건강 ➔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은 건강하지 못하여 전염병 등의 병균을 막아 낼 수 있는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쉽게 병에 걸린다.</p>	<p>안전 ➔ 안전하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이 쓰러지기 직전이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다.</p>



빈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서 예시와 같이 적어 보세요

빈곤 문제 해결 프로그램

- 예) 기본적인 수준의 음식 제공
- 무료 의료 보호시설 만들기
- 저소득 지역의 교육 기금 마련하기
- 성인 교육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나는 다음을 실천한다.

① 나는 학교 급식을 남김없이 먹겠습니다.

②

③

④

⑤

나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위의 내용을 실천하겠습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이름 _____ (서명)

우리가 사는 지구, 함께 가꾸어요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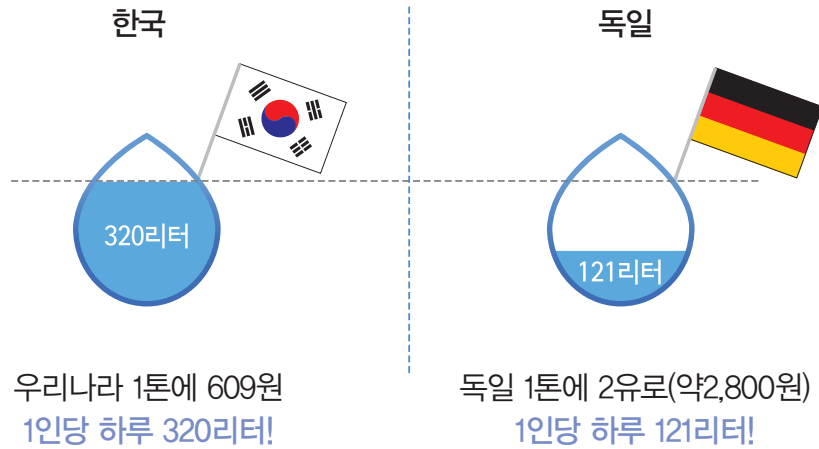
- 1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 2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본다.



활동 1 동영상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서구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기는 남반구에 사는 아기들에 비해 평균 40~70배나 많은 물을 소비한다. 북아메리카 사람 한 명이 1년에 소비하는 물의 양은 1,280m³이고 유럽 사람은 694m³, 아시아 사람은 535m³, 남아메리카 사람은 311m³, 아프리카 사람은 186m³이다. (리카르도 페트렐라, 물 전문가)

[1인당 물 사용량 비교 우리나라 vs 독일]



활동 3 물 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 아프리카에 깨끗한 수도시설 설치, 우물 만들어 주기,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는 담수화 시설 개발하기, 깨끗한 수도 시설, 하수처리 설치, 채식을 많이 해서 육류를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 절약하기 등



양치질할 때 물 받아 쓰기

우리가 사는 지구, 함께 행복해요

학습 목표

- 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구촌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살펴본다.
- ② 전쟁과 갈등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 ③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보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

1

동영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에서 소년병들이 강제 징집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와 시에라리온 지역 소년병들이 마약 중독과 육체적 학대 및 죽음에 대한 위협 아래 참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전쟁에 동원된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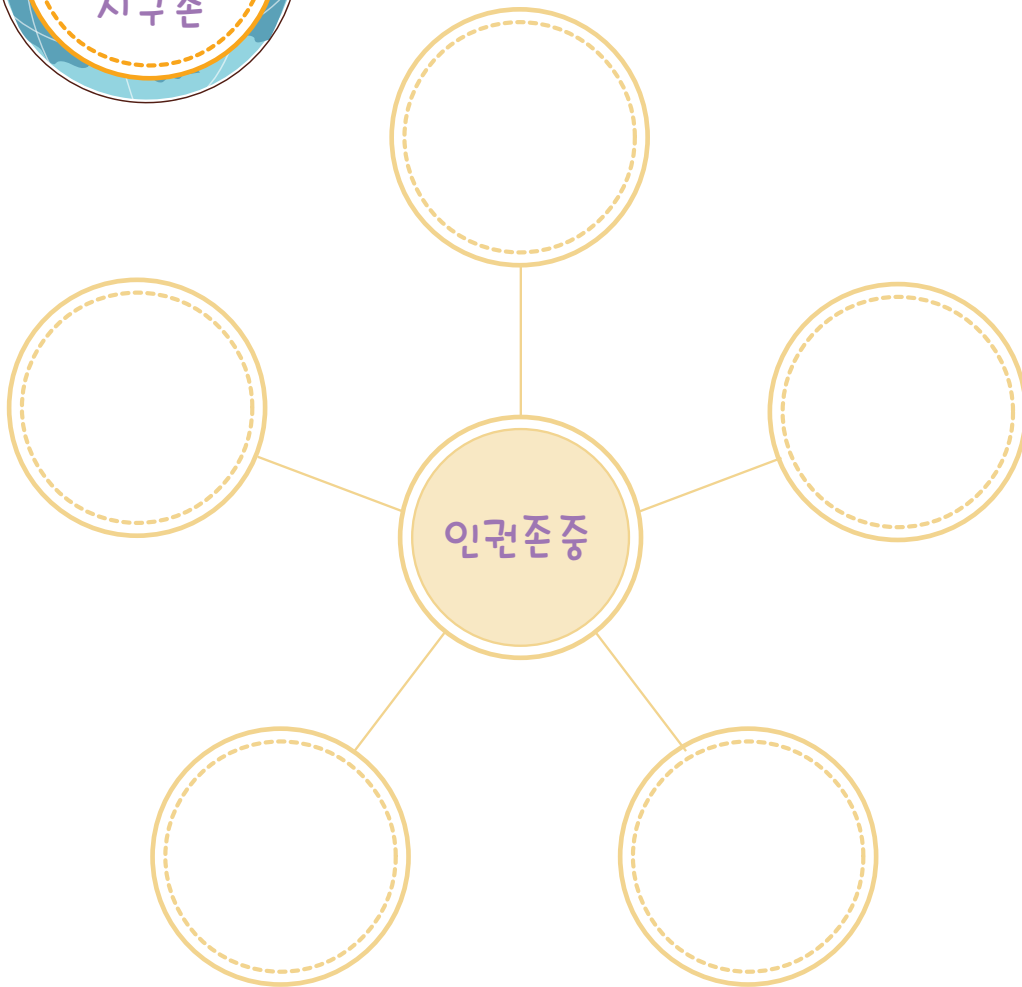
질문 1 :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질문 2 : 전쟁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나요?

질문 3 : 내가 전쟁이 난 국가의 소년이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활동 2 평화 마인드 맵 그리기

“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려면” 필요한 것들을 마인드 맵에 적어 봅시다.



- 예) 사람들 간의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더 공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우정을 지키며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모든 사물들은 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활동

3

평화 포스터 그리기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포스터를 그려 보세요.

앞에서 작성한 마인드 맵을 가지고 모듈별로 활발한 토론을 거쳐 포스터 문구를 정해 봅시다.

세계시민 요소 스티커

나는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이해하려고 한다.

세계의 모든 사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모든 사람은
나와 동등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정의로운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한다.

나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환경을 돌보고 사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 싶다.

나는 내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바꿀 수 있다.

나는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나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필요 카드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물



옷



따스함



안전



사랑과
보살핌



보건



집



가족



교육



의료 서비스



문화생활



휴식



친한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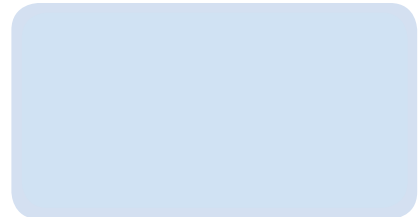
놀이



돈



종교



초등 2학년

활동3

우편엽서 쓰기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9.1 - 2012.12.31

서울마포우체국
제40777호

보내는 사람 _____

□ □ □ - □ □ □

받는 사람 _____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교육센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7 2층

1 2 1 - 8 8 7

빈곤 현상 스티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세계에는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9명은 노인입니다.

90명은 이성애자이고 10명은 동성애자입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입니다.

33명은 기독교, 19명은 이슬람교, 13명은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5명은 나무나 바위 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4명은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17명은 중국어로 말하고, 9명은 영어를, 8명은 힌두어와 우르드어를, 6명은 스페인어를, 6명은 러시아어를, 4명은 아랍어로 말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해도 겨우 마을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반은 벵골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중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74명이 39%를, 그리고 겨우 2%만을 20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6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신앙,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것, 그리고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1년 동안 마을에서 1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의 아기가 새로이 태어나므로 내년에 마을 사람은 101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행복은 두 배, 세 배로 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을 떠올리며 이 글을 보내 준 누군가가 존재하고, 당신은 물론, 글자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은

돌고 돌아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부르세요.

신나게 맘껏 춤을 추세요.

하루하루를 뜻있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 마음껏 사랑하세요.

설령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 해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먼저 당신이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살아 있다는 것을
당신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만일 우리 중 많은 이가

이 마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비열한 힘으로부터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시리아, 어린이를 인간 방패로까지 이용 UN, 보고서 발표 “단죄받을 것”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유엔은 11일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보고서 ‘어린이와 무력 분쟁’에서 시리아 어린이들이 정부군, 정보기관, 친정부 폭력 단체인 ‘샤비하’ 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불구가 될 만큼 심각한 구타를 당하거나, 임의 체포, 구금, 고문, 성적 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3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이들립성의 아인 라루즈 마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8~13살 정도 어린이들을 정부군의 수송 버스 앞에 세워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리아가 어린이를 살해·고문하거나 강제로 전투에 내모는 ‘치욕적 명단’(list of shame)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시리아 내 시위가 시작된 뒤, 학교가 군 사령부나 수감 센터로 징발되는 일이 잦았으며, 어린이들을 수감하고 눈가리개를 씌운 채 전선줄 등으로 구타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한다고 고발했다. 정부군의 한 병사는 유엔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진압 작전에 나서면서 ‘어린이나 여성도 개의치 말고 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전 세계가 시리아의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들이 단죄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어린이들이 ‘희생 폭탄’이 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희생 폭탄은 자신이 무엇을 운반하고 있는지 모른 채 자살 폭탄 공격에 투입되는 이들을 뜻한다. 유엔은 2011년 한 해에만 각각 11명의 아프간과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희생 폭탄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보고서의 신빙성과 관련해 “이곳에 거론된 내용은 지난 3월 ‘어린이와 무력 분쟁’ 대표가 현장의 난민 캠프 등에서 피해자를 인터뷰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명단에는 시리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국립 경찰, 수단, 리비아, 이라크 등 52개 국가 또는 무력 집단이 올랐다.

김윤형 기자 <한겨레 뉴스> 2012년 6월 12일자 기사





더하는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NGO 단체와 정부 기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1961년 창립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United Nations , UN)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국제연맹의 뒤를 이어 탄생한 국제평화기구입니다. 세계 대다수 국가를 포함하고, 정비된 조직과 광범한 기능을 갖춘 국제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이며 종합적인 인권 전담 기구입니다.

* 이밖에도 많은 단체와 정부 기관들이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당신에게 쓰는 편지”



테툼어를 공부하는 아이들



공동 노동으로 학교 울타리 만들기

동티모르 소모초에서 쓰는 마지막 일기이다. 이곳에서 보낸 2년이라는 세월을 기억하자, 복잡 미묘한 감정이 가슴을 스친다. 한 집 한 집 찾아가 이별 인사를 나눌 때 아주머니들이 동티모르 전통 머플러인 ‘타이스’를 목에 걸어 주셨다. 동네 아이들과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사진을 돌려 보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에는 이야기 꽃을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만약 오늘 저녁 한국에서 단 한 대의 버스와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조차 없다.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일을 상상하기 어렵다. 1시간이 넘는 길을 꼬박 걸어야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시장에 가기 위해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려고 무작정 기다리는 아주머니들에게는 목적지에 가는 것 자체가 벅찬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촌나눔운동 행복트럭이 달리기 시작했다. 아침 7시 반이면 센터 앞 길가에는 학교에 가기 위해 아이들이 줄을 선다. 매주 토요일에는 장이 서는 로스팔로스에 가기 위해 아주머니들도 아이들과 덩달아 분주하다. 차 한 대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니 놀라울 뿐이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교과서도 없고 선생님이 오시지 않으면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 집에 가는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술’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교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있으나마나 한 과목이다.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난 6개월 동안 “미래를 만드는 우리”라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2학년 어린이들에게는 동티모르 공용어인 테툼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했다. 조그마한 손에 힘주어 알파벳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교재를 만들며 느꼈던 힘겨움이 나도 모르게 함박웃음으로 변하곤 했다.

3·4학년 어린이들과는 열 번의 수업을 함께 했다. 처음에는 빨강·주황·노랑·초록 등의 색 중 검은색밖에 모르던 아이들이 이제 각기 다른 색으로 종이 접기를 하고, 필통을 만든다. 색종이를 자르고, 물감을 묻히고 색연필로 친구를 그리는 이 아이들의 표정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무지갯빛이었다.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외국 NGO가 흔한 동티모르이기 때문일까? 동티모르의 산골인 이곳 소모초 아이들도 영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선생님이 말하는 단어 하나를 놓칠세라 5·6학년 학생들은 매순간 열심이다. 이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동티모르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뿌연 석회수이지만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물이 없어서 매일 3킬로미터 이상



걸어서 1시간인 등굣길, 아이들을 위한 행복트럭





행복기금으로 사용되는 행복트럭 운임 5센트



행복기금으로 다시 태어난 소모초 성당

을 걸어가 겨우 물을 길어 왔던 이곳 사람들과 내게는 이것이 바로 오아시스 가 아니었을까? 심 봤다! 물이 나오니 이제 밭 뺨고 잘 수 있게 됐다. 지구촌 나눔운동이 이곳에서 가 장 먼저 풀었어야 하는 문

제를 오늘에서야 해결한 셈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제 주민들이 핸드 펌프를 잘 사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변화는 행복이다. 나도 주민도 모두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준다. 행복트럭 운임 5센트, 집수장치 설치비 2달러. 주민들이 낸 돈은 마을을 바꾸고 가꾸는 주민자치기금, 행복기금으로 적립된다. 이제 그 기금을 사용할 차례이다. 첫 번째로 주민들은 오래 전에 지어져 낙후된 소모초 성당을 보수하기로 결정했다. 행복기금을 통해 필요한 자재를 사고, 신부님들이 기술자를 고용하고, 주민들이 일손을 도와 소모초 성당이 새롭게 태어났다. 두 번째로 주민들은 배구코트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오랜 세월, 외부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해진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주기만 하는 NGO 단체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 온 주민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은 동티모르 사람들의 수동적인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을 돕기 위해 온 나 자신 또한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선한 마음만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말이 다시금 뇌리를 스친다. 변화란 쉽고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달라져도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것!

동티모르 주민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지난 2년간의 세월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주민들도 나와 함께 행복을 느꼈기를 소망해 본다. 동티모르! 그곳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과 사랑이 있다.

출처 : 2008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지구촌 희망이야기》,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더하는 정보 빈곤 퇴치를 위해 일하는 NGO단체, 국제기구, 정부기관 소개

지구촌나눔운동(Global Civic Shating,GCS)

지구촌나눔운동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로서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돕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촌 건설에 기여한다”를 비전으로 1998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세계 여러 빈곤 국가에서 활동 중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정부산하기관입니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인프라 건축, NGO 지원, 재난복구 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많은 NGO 단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구촌 빈곤 퇴치와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병원들 물 부족... 수술 취소 잇따라

인도 수도 뉴델리의 대형병원들이 수돗물 부족으로 수술을 취소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뉴델리에서 제일 큰 규모인 바라 힌두 라오 병원이 지난주 물 부족으로 40여 건의 수술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병원 의료진은 수돗물이 부족해 수술 도구 소독은 물론 수술실 청소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술을 취소해야 했다. 심지어는 의사들이 손을 씻을 수도 없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주 초가 최악의 상황이었다”면서 “부인과의 한 의사는 지난 18일과 19일 10건의 수술을 취소하고 일정을 새로 잡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딘 다얄 우파드야야, 암베드카르, 사프다르정 등 시내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실정이다.

입원 환자들은 식수를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고 의료진은 병균 감염을 막기 위해 자주 손을 씻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또 병원 화장실에선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야근을 위해 출근하는 병원 직원들은 자신들이 근무 중 먹을 물을 미리 챙겨야 한다. 신문은 또 시티워크 등 시내 일부 대형 쇼핑몰에선 지난 주말 물이 부족해 화장실을 임시로 폐쇄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벌써 40도를 웃도는 더위를 피해 쇼핑몰에 몰려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뉴델리의 물 부족 현장은 인접한 하리아나 주(州)에서 원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창엽 특파원 yct9423@yna.co.kr <연합뉴스> 2012년 6월 25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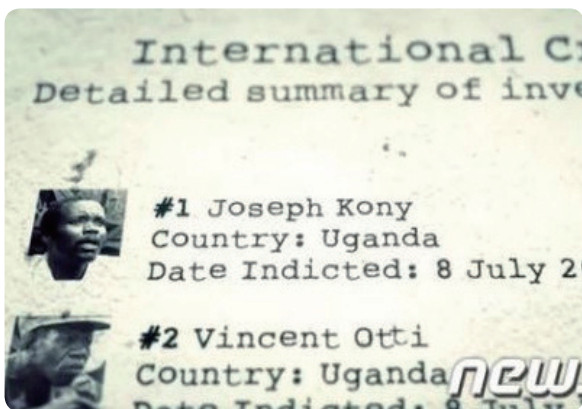


소년병 제이콥 이야기



조셉 코니의 소년병이었던 제이콥/출처=ABC News News1

제이콥은 우간다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에게 끌려가 부모를 총으로 쏘거나 친구들의 얼굴을 훼손하라고 강요받았다. 그의 형은 탈출을 시도하다 이 소년의 눈앞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제이콥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다. 6만여 명의 우간다 어린이가 조셉 코니에게 붙잡혀가 남자 아이들은 게릴라 군으로, 여자 아이들은 성 노리개로 전락했다. 코니는 주로 한밤중 시골에서 잠자는 어린이들을 납치해 자신의 병사로 삼았다.



국제형사재판소지명수배 순위 1위에 오른 조셉 코니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셉 코니(61)는 정권 축출을 내세우며 우간다 반군단체 '신의 저항(Lord's Resistance Army)'을 조직한 뒤 20년 이상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지명수배 1순위에 올랐다. 조셉 코니의 범행이 전해지자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조셉 코니를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고 미군 자문단을 우간다에 파견해 조셉 코니 포획 작전을

세우도록 했다. 하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잠적한 코니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행방불명된 코니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며 미군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제이콥과 인연이 있는 한 비영리 단체가 나섰다. 비영리 단체 '사라진 아이들(Invisible Children)'의 설립자 제인슨 러셀은 제이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년병 문제를 알리고 사라진 코니를 체포하기 위해 '코니 2012' 동영상 만들었다. 이 동영상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현재 조회수가 5800만을 육박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 저스틴 비버 등 인기 스타들도 '코니 2012'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참하기로 나섰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전세계에 50만 명의 소년병이 있고, 이중 절반은 주로 아프리카의 무장단체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꿈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는 소년병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권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변호사가 꿈이지만 돈이 없다'고 멀쩡하게 말하던 제이콥은 현재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우간다 마케레레 법대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다.

전준우 기자 <머니투데이> 2012년 3월 10일자 기사

